

#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2월 4일  
제1986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마르 1,30-34)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렘브란트

## 연중 제5주일 (나해)

**제 1 독서** 욕기 7,1-4.6-7 | 나는 고통스러워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화답송** 시편 147 |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제 2 독서** 1코린 9,16-19.22-23 |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복음** 마르 1,29-39 | 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다.

## 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서는  
 29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30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31 예수님께서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32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33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34 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5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 외딴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36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37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8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다.”  
 39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온 갈릴래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마르 1,38

Let us go on to the nearby villages  
 that I may preach there also. Mk 1,38



바오로 딸 콘텐츠

## 복음 묵상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은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우리의 삶을 묵상하도록 이끕니다. 제1독서에서 시련에 부딪힌 옴은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임을 선언하며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전형적인 하루는 노고와 헌신으로 가득 찬 우리의 하루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며 허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의 고백은 이 고역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 내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던져 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의무”라고 여기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따로 “삿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받는 “삿”이라고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에게 주어진 무거운 의무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는 행복의 원천으로 여깁니다.

삶은 우리가 반드시 살아 내야 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같습니다. 이 의무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 이면에는 기쁨과 행복이 자리합니다. 삶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기에,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선물이자 보상이 됩니다. 삶 속에서 순간순간 느끼는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 이웃과 주고받는 따뜻한 사랑, 세상의 아름다운 인물들과 아름다운 사건들은 삶이 주는 행복이고, 이 행복은 수고스러운 삶을 살아 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삿”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삶 속에서, 이 삶을 통해서만 행복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최정훈 바오로 신부>

## 복음과 성화

## 시몬의 병든 장모와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마르코복음 1,29-34)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렘브란트

렘브란트(Rembrandt, 1606-1669)가 1650년대에 그린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보면

성경의 표현이 더욱 간결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 손으로 시몬의 장모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곳에는 제자들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시몬의 장모만을 등장시켜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집중시킵니다.

허리를 굽힌 예수님께서서는 눈길을 여인에게 맞춥니다.

그러자 고열로 사경을 헤매던 그 여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내민 손길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고,

그분의 시선에는 자비가 묻어나며,

상체를 숙인 그분의 몸짓엔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상처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지극한 눈길에 우리의 두 손을 내미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결핍된 부분을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것은 어떨까요?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https://blog.naver.com/sonyh252/220027977104>〉

## 가톨릭 뉴스

2024년 ‘기도의 해’ 선포…  
“세계 평화 위해 기도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5년 희년을 앞두고 올해를 ‘기도의 해’(Year of Prayer)로 선포했다. 교황은 1월 21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삼중기도 중 기도의 해를 선포하면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교황은 이날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2만여 명의 신자들에게 “우리가 은총의 행사인 기도의 해를 잘 살고 하느님의 희망이 지닌 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삼중기도 후에 이어진 발언을 통해 “기도의 해 목표는 기도가 갖고 있는 큰 가치와 그 필요성을 재발견하는 것이며, 개인 생활에서의 기도, 교회 생활에서의 기도 그리고 세계를 위한 모든 기도를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교황은 “기도의 해에 특히 교회일치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에콰도르 등 분쟁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 하느님께 평화를 호소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자”면서 “꿈과 미래를 빼앗긴 채 다치거나 죽임을 당하는 많은 어린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평화를 건설할 책임을 인식하자”고 호소했다.

교황청 복음화부는 기도의 해와 다가오는 희년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를 희년 웹사이트([www.iubilaeum2025.va](http://www.iubilaeum2025.va))에서 제공하고 있다.

〈가톨릭신문〉

**1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 2월 4일(일) 오전 11:30 (B-1,2)

**2 단체장 회의**

- 일시 : 2월 4일(일) 오전 11:30 (A-3,4)

**3 2024년 바오로딸 성경학교 1학년 오리엔테이션**

- 일시 : 2월 4일(일) (A-1,2)
- 대상 : 1학년 신입생 등록자 전원

**4 병자 영성체**

- 일시 : 2월 9일(금)
- 신청 : 정문기 윌리엄 (703) 598-3316

**5 유아세례**

- 일시 : 2월 10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설날 합동 위령미사**

- 설날 합동 위령미사 : **2월 11일(일)**
- 미사는 설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 10시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연도와 제례가 있습니다.
-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합동 위령미사 예물을 봉헌하실 분들은 미사 시간을 적어서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시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10시 미사 때 봉헌됩니다.

**7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 2월 11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8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 일시 : 2월 14일(수) 오전 10:30 - 십자가의 길  
오전 11시 - 미사  
오후 7:30 - 미사
- 미사 중에 재의 예식이 있습니다.
- 지난 해 성지주일에 나누어 드린 성지 가지를 본당 입구에 마련된 성지 가지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9 2024년 견진반 신청**

- 대상 : 7학년 이상
- 일정 : 3월 6일(수) 오후 7시 - 오후 8:30
- 등록 기간 : 2월 18일(일)까지 (하상관 교무실)
- 문의 : 임형준 교감  
(703) 624-8196  
[hyungjoonlim71@gmail.com](mailto:hyungjoonlim71@gmail.com)

**10 2024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약정**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를 약정 받습니다. 2024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95,000입니다.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월 11일(일)에 BLA(주교님 사목 보조비)를 미사 중에 약정받습니다.

**11 제6기 성 마리아 어머니 학교**

- 일시 : 3월 2일(토) - 3일(일), 1박 2일
- 수강료 : 일인당 \$180
- 장소 : The Northern Virginia 4-H Education Center
- 참가 대상 : 어머니(나이 제한 없음), 선착순 40명
- 접수 기간 : 2월 4일(일)까지 (친교실, 성당 입구)
- 문의 : (703) 470-1220 / (703) 864-1236

**12 CYO WorkCamp 봉사자 모집**

- WorkCamp 일정 : 6월 22일(토) - 6월 28일(금)
- 장소 : Frederick County, VA
- 2024 WorkCamp 남자 크루 리더, 여자 크루 리더, 컨트랙터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크루 리더는 25세 이상, 모든 봉사자는 Virtus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 (571) 244-0333



- ◇ 2월 15일(목)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수난 40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 ◇ 새벽 5시 30분에 십자가의 길과 미사가 봉헌되며, 주일에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 ◇ 십자가 복사와 초 복사를 해 주실 분들은 입구 계시판 밑에 원하는 요일에 이름을 적어 주세요.
- ◇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후문을 이용해 주시고, 주차는 하상관 주차장 앞쪽 라인과 성당 앞쪽 라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성당 쪽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차량 방향을 성당 쪽으로 하시어 차 불빛이 주택가를 향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교중미사 예불봉헌

**02/04 이번 주** 비엔나 1구역

**02/11 다음 주** 비엔나 2구역

성당 청소

**02/04 이번 주** 페어팩스 3-1,2 & 3,4구역

**02/11 다음 주** 라우던 1,2구역

성당을 아름답게 꾸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1월 28일 (연중 제4주일)

봉헌금	\$ 7,367.00
교무금	\$ 9,680.00
교무금(신용카드)	\$ 3,430.00
감사 헌금	\$ 1,210.00
2차 헌금	\$ 3,633.00
온라인 봉헌	\$ 2,010.00
합계	\$ 27,330.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 바로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4년 2월 8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2월 9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2월 11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성서 못자리 : 김덕재 신부 4복음서 강의  
[제 10강] '구원자 예수와 인간 구원'

교황님의 2월 기도 지향 1

말기의 병자들

생의 말기에 있는 병자들과 그 가족들이 의료적 측면에서도 인간적 측면에서도 언제나 필요한 보살핌과 동반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